■민족문화연구 제85호(2019.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47-76.
http://doi.org/10.17948/kcs.2019..85.47

【특집1: 한국 전문 사전 편찬의 현재와 미래】

한국 무형문화재 관련 사전 편찬의 현황 및 방향*

김윤지(金允志)**

목 차

1. 들어가며
2. 한국 무형문화재의 이해
3. 한국 무형문화재와 사전 편찬
4. 나가며

국문초록

이 연구는 개화기 이후부터 2010년까지 국내에 간행된 사전 중에서 한국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사전 편찬의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무형문화재 사전' 편찬의 필요성과 그 사전 편찬의 미래적 프레임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무형문화재는 한국이라는 지역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동일한 문화권 속에서 시간의 축적과 함께 전승되어 온 역사성・학술성・예술성・대표성을 지닌 공식화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분야를 다룬 종이 사전은 약 17개 정도이며, 이 중 2개는 검색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둘째, 한국 무형문화재의 분야를 다소 비중있게 다룬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사전 3개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7-KFR-1230008).
**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 세종시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의 해제를 통해서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니, 한국 무형문화재의 사적 조망을 가능하게 해 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다만 표제어의 집필내용이 소략하게 제시된 점, 제시된 내용들이 단편적이라는 점, 편집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들은 해당 사전 편찬의 한계이자, 차후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셋째, 한국 무형문화재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접근을 통해서 무형적 유산들의 진화적인 과정과 그 과정을 작품화시킨 인물들까지 조명할 수 있는 사전 편찬의 미래적 설계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를 표제어로 선정하여, '한국무형문화재 사전' 편찬의 집필 프레임을 제시한다.

주제어: 한국 무형문화재, 사전, 예술, 무용, 승무.

1. 들어가며

무형(無刑)이라는 것은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모양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어떤 실체를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무형적 예술' 또는 '무형의 예술'은 무엇인가, 실체 없는 예술은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는 말인가, 참으로 어려운 화두이다. 본 연구자는 이를 인간의 작업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미적(美的) 표상, 상징, 심상 등으로 여기며, 그것은 또 하나의 독립된 작품으로 미적 체험을 선사하고, 사유의 진화를 통해서 수용과 변용의 가능성을 지닌 대상으로 본다. 그 대상은 우리 곁에서 가변의 가능성을 지닌 채, 없는 듯 하지만 존재하고 있고, 사라지는 듯 하지만 존립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한국 전통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사람 대 사람으로 전승되어 온 것을 우리 국가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이처럼 짧게나마 살펴본 '무형적 예술', '무형의 예술' 그리고 '무형문화재'가 지닌 본질적인 이해 접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개념적 부족으로부터 오는 '무형문화재'를 둘러싼 문제들이 사회적인 갈등으로까지 확대[1]되고 있다. 무형문화재를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체계적인 지식으

1) 기존 1세대 보유자들의 잇단 타계로 인한 보유자 자리의 '인정' 문제, 전승구도를 둘러싼 보존회의 '내부갈등' 문제, 국가보조금 사용에 관한 '공정성·투명성' 문제들이 사회적인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면서 2016년 2월 1일-2019년 8월까지 주요언론사(동아일보·연합신문·중앙일보) 등을

로 정립해야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지는 대목이다.

그 일환으로써 본 연구는 첫째, 한국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사전 편찬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둘째, 한국 무형문화재를 다소 비중 있게 다룬 공공기관의 사전을 중심으로 해제(解題)하여 해당 사전의 체제와 내용 구성을 파악한다. 셋째, 그 파악을 토대로 향후 한국 무형문화재 사전 편찬을 위한 표제어 데이터의 구성과 프레임[2]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무형문화재를 둘러싼 혼선과 갈등의 감정선을 보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지식 알고리즘으로 풀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다만 본고 3장에서 제시한 한국 무형문화재 관련 사전 편찬 현황의 정량적 수치가 절대적인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점, 무형적 예술이 지닌 소멸성·가변성·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해제 제시의 내용과 형식이 다소 간헐적이고, 불균형할 수 있다는 점들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긴다. 또한 '한국 무형문화재 사전' 편찬 작업의 거시구조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관점과 과정이 필요한 논제임으로 차후 과제로 둔다.

2. 한국 무형문화재의 이해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주제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 무형문화재는 어렵고도 애매모호한 대상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아랫글을 빌려서 무형적 예술의 이해를 도모하고,

---

포함하여 120곳에서 보도되었다. 특히, 2018년 9월부터 10월에는, '뉴스핌'에서 국가무형문화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특별기획으로 연재하여 집중적으로 다뤘다.

2) 한국 무형문화재는 '한국'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토대로 한 동일한 문화권 속에서 시간의 축적과 함께 전승되어온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대표성을 지닌 공식화된 고전을 의미한다. 현재 해당 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 133종목·시도무형문화재 505개가 있으며 이 글에서는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무용분야의 '승무' 종목을 중심으로 사전 편찬의 미래적 프레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본고에서 '승무'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상단의 각주 1)에서 제시한 사회적인 갈등이 4년 동안 지속되어온 대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타 분야(한국 유형문화재 사전, 한국문화재 사전, 한국 미술사 사전 등)에 비하여 무용분야는 사전 편찬의 지식 체계가 가장 취약하다. 즉 본고는 무용분야가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그 해결안의 단초가 될 만한 지식 제안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승무'를 표제어로 선정하고, 한국 무형문화재 사전 편찬의 한 일면으로서의 방향을 보여주고자 한다.

한국 무형문화재의 개념 정립을 위한 기초적인 특성을 제안한다.

> 생계를 위한 노동, 타자와의 소통을 위한 행위, 가치를 추구하는 작업들이 모여서 예술작품이 탄생한다. 이때의 예술작품의 직접적인 원천은 인간의 사유 능력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능력이다. 단순한 욕구와 본능의 동물적 속성과는 상이함을 나타내며, 이 능력은 끝없이 사물화되고 표현화된다. 예술작품의 이러한 가시화는 단순한 변형 이상의 것이다. 여기서의 사물화와 표현화는 마치 타서 재가 되는 자연의 과정이 거꾸로 되거나, 심지어는 먼지조차 타서 불길이 되는 것과 같다. 예술작품은 사유의 산물이다. 이러한 사실이 예술작품이 지속적으로 사물화되고 표현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춤을 추고, 작곡을 할 때 발생하는 사물화 및 표현화는 사유를 실재로 만들고 사유의 사물을 제작하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작업성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작업성이 영광스럽게도 살아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예술의 현저한 영속성 덕분에 예술작품은 모든 구체적인 사물들 중에서 가장 세계적인 사물에 속한다. 이들의 지속성은 자연의 부패력으로부터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술작품들은 살아있는 피조물이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자의 목적은 누군가 거기에 앉을 때 실현되는 것과는 달리 예술작품의 경우, 내재적 목적의 실현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은 오히려 예술작품을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술작품의 지속성은 모든 사물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지속성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영속성을 지니게 된다.[3)]

이 같은 그녀의 의견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본 연구자의 해석은 인간 사유의 능력을 작업화하여, 상징화하고 가시화하는 것을 예술활동 또는 예술작품으로 보며, 그리고 그것은 끝없는 영속성을 지니면서 우리 곁에 머문다. 특히 본 연구자는 문화와 예술의 주체자가 '인간'이라는 것에 주목하는 바이다. 그녀는 인간 활동 중에서 예술 표현 활동은 인간이 지닌 일차원적 속성이 아니라 사유하는 인간의 고차원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또한 그 표현들은 영속성을 지니면서도 진화론적 발전과 함께 안정감 있는 문화, 예술, 고전으로 상징화되어서 우리와 공존한다고 한다. 결국 문화와 예술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가운데

3) 한나 아렌트 지음, 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7, 35-228면.

서, 우리들은 끝없이 사유하고 성장하는 인간의 진화론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문화와 예술이 지닌 힘이기도 하다. 우리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 성숙한 사회, 성숙한 국가로의 발전까지 가능하며, 그것이 곧 예술의 주된 기능일 수 있다.

즉 무형적 예술은 사유하는 인간의 표현에 의해서 '성숙된 보다 나은 삶'으로 진보할 수 있는 도구이자, 작업이자, 작품인 것이다. 무형적 예술에 대한 이 같은 맥락적인 이해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한국 무형문화재를 한국이라는 지역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동일한 문화권 안에서의 가변성을 지닌 인간 작업의 표현요소, 과정, 작업으로 여기며, 관련 분야로는 공연・관습・의식・놀이 등을 들 수 있다. 사실, 사람 대 사람으로 전승되어 온 한국 무형문화재 안에는 숨어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다. 살기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으로부터 시작하여 역사적 흐름과 시대별 배경 속에서도 수용과 변용을 거듭하며 양적 팽창과 질적 성장을 해온 한국 무형문화재는 무의미를 의미화하고, 행위를 작품화하고, 종합적인 것을 전문화로 성숙시킨, 수많은 예인들과 숱한 작업의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있다. 다만 무형적 예술이 지닌 한계로 인해서 유형적으로 일일이 보존할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 고유의 조화미와 형태미를 지닌 상징코드로 표현된다. 그리고 그 상징코드는 시대를 거듭해가면서 변질되거나 손실될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니기도 하고, 때로는 유사하게 '재생산' 될 수 있는 공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존립되어 온 것이 바로 한국의 무형문화재인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무형문화재를 유형문화재의 관점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현재 보여지는 현상만으로 한국 무형문화재를 제시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느낌 마저 든다. '재생산' 될 수 있는 무형적 예술의 공유성으로 인해서 우리 고유의 고전이 잘못하면 다른 나라의 작품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사전'에 주목하는 바이다. '한국 무형문화재' 사전 작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물론 무형적 예술의 사전적 작업은 늘 한계에 머물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한국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사

전들은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내용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과정보다는 결과에, 사람보다는 작품에 치중되는 경향 또한 보인다. 더군다나 유동적인 무형적 예술을 지식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자칫 무형유산의 '고착' 위험을 동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그 '고착'의 위험보다는 작품으로서의 진화 과정을 포착하고, 그것이 지닌 의미까지 안내할 수 있는 사전 편찬의 기능을 우선시한다. 즉 그러한 사전 편찬은 해당 예술의 정체성 확립 및 전형[4]으로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한국 무형문화재와 사전 편찬

전장에서는 무형적 예술이 지닌 개념과 그 개념을 통한 한국 무형문화재의 궁극적인 특성 및 가치를 살펴보았고, 그 과정들까지 담을 수 있는 사전 편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했다. 이에 해당 장에서는 한국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분야(공연・관습・의식・놀이 등)의 사전 편찬 현황[5]을 제시하고, 그 중 대표적인 백과사전의 해제(解題)를 통해서 해당 사전에 대한 설명과 의미를 부여해본다. 더 나아가 일련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 무형문화재 사전 편찬을 위한 표제어 집필의 미래적 프레임 방향을 제시한다.

1) 한국 무형예술 관련 사전 편찬의 현황

한국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분야가 서명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대항목의 표제어로 편찬된 사전은 아래 〈표 1〉과 같이 목록화할 수 있다.

---

4)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승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 기법 또는 변하지 말아야 하는 궁극적인 본(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발전하는 전승의 변화까지를 수용하는 모범적인 예술을 의미한다. 전형으로서의 예술은 전승의 지속성・발전의 과정・계보의 정체성・예술적 특성・학술적 근거 등을 갖춰야 한다. 김윤지,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가치의 재인식과 쟁점 모색」, 『문화와 융합』 제38권 3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a, 207면.

5) '한국 무형문화재'를 단독으로 다룬 전문 사전은 현재 전무한 상태이므로, 관련 분야들의 표제어를 비중 있게 다룬 백과사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온라인(on-line)의 제공 여부를 파악하다.

〈표 1〉 한국 무형문화재 관련 사전편찬 자료모음(현재기준)[6]

순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료명	온라인 제공	저작자명	발행처	발행지	발행 년도	소장처
1	예술 · 체육학	무용	무용일반	宮中呈才 用語事典	×	孫善淑 지음	민속원	서울	2005	[국 · 중] [KDC] 685.103-5-1
2	예술 · 체육학	연극	연극무대 장치/효과	무대기술 용어 소사전	×	한양대 연극영화학과 무대기술 연구소 편	꿈	서울	1994	[국 · 중] [KDC] 681.303-한735ㅁ
3	예술 · 체육학	연극	연극일반	公演藝術叢書 6 : 연극사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韓國文化藝術振興院	서울	1981	[고려대] [DDC] 792 1981
4	예술 · 체육학	연극	연극일반	公演藝術叢書 8 : 演劇事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韓國文化藝術振興院	서울	1981	[고려대] [DDC] 792 1979b 8
5	예술 · 체육학	연극	연극일반	연극사전	× 영인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니	서울	1990	[고려대] [DDC] 792.03 1990 외
6	예술 · 체육학	연극	연극일반	연극사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니 [영인제작보급]	서울	1993	[서울대] 792.08 M925g 1993
7	예술 · 체육학	연극	연극일반	연극사전	× 영인2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니	서울	1995	[국 · 중] [KDC] 680.3-한494ㅇ 외
8	예술 · 체육학	연극	연극일반	演劇事典	×	韓國文化藝術振興院 編	韓國文化藝術振興院	서울	1980	[국회] R 792.03 ㅎ155ㅇ
9	예술 · 체육학	연극	연극일반	演劇事典	×	宋志英 著	韓國文化藝術振興院/예니	서울	1981	[국 · 중] [KDPC] 4904-4-8
10	예술 · 체육학	연극	연극일반	연극용어사전	×	테리 호즈슨 지음; 김익두 등 옮김	한국문화사	서울	1998	[국 · 중] [KDC] 680.34-호414ㅇ김
11	예술 · 체육학	연극	연극일반	연극학사전	×	빠트리스 파비스 지음; 신현숙 · 윤학로 공 옮김	현대미학사	서울	1999	[국 · 중] [KDC] 680.3-파134ㅇ신
12	예술 · 체육학	예술학	민속예술	民俗藝術事典	×	韓國文化藝術振興院	韓國文化藝術振興院	서울	1979	[국 · 중] [KDC] 688.028-1-2
13	예술 · 체육학	공연학	공연예술	한국예술사전 [韓國演劇,舞踊,映畵事典]	×	대한민국예술원	대한민국예술원	서울	1985	[국 · 중] [KDC] 688.099-9-7
14	인문학	민속학	한국민속	한국민속대관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서울	1982	[국 · 중] [KDC] 028.63-하231ㅇ게 외 다수
15	인문학	민속학	한국민속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울	1991	[국 · 중] [KDC] 657.1-8-47-5 외 다수
16	인문학	민속학	한국민속	한국민속의 세계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서울	2001	[국 · 중] [KDC] 688.03-2-1 외 다수
17	인문학	민속학	한국민속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2001~	[국회] R 791.43 3403 ㅇ621ㅇ

6) 이 표는, 관련 연구 사업의 자료를 중심으로 본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을 더한 것이며, 차후 연구 수행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일러둔다.

〈표 1〉의 '온라인 제공여부' 항목은 종이사전이 점점 사라지고, 디지털화되는 현시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대목이다. 특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등이 주요 포털에서 제공되고 있고, 더 나아가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한국 무형문화재 관련 온라인 사전 제공의 목록화[7]

네이버(NAVER, 13곳)	다음(Daum, 8곳)	구글(Google, 10곳)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Daum백과사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Daum백과사전	위키백과
문화원형사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사전
조선향토대백과	문화콘텐츠용어사전	나무위키
위키백과	위키백과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한국민속신앙사전	학습그림백과	한국사 기초사전
한겨레음악대사전	만화가백과	한국민족신앙사전
두산백과		한국민속예술사전
무용이론사전		NAVER지식백과
NAVER지식백과		
한국무용사전		
문화콘텐츠닷컴		

동일한 종이사전이라고 해도 포털별로 지식 제공의 방식과 구성에는 상이함이 있다. 네이버는 종이사전의 지식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었고 텍스트와 함께 포털이 지닌 강점, 즉 동영상, 이미지, 사진 등의 콘텐츠 제공을 가장 잘

7) 포털이 지닌 다양한 기능 중에서 '검색'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2000년대 이후 포털사 간의 치열한 경쟁은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 흥과 쇠를 거듭하면서 '야후 코리아'는 2012년 12월 31일자로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고, 한국에서의 철수를 공표했다. 또한 '엠파스'의 경우, 다음 사전 또는 백과사전으로 링크된 상황이므로 본고에서는 최근 수년간 웹사이트 평가 및 트래픽 분석업체인 인터넷 메트릭스(http://www.metrixcorp.com)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전세계적인 검색엔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을 대상으로 다룬다. 또한 〈표 1〉 종이사전을 근거로 한국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표제어를 사전식으로 제공하는 있는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 문화재청(www.cha.go.kr), 국립무형유산원(www.nihc.go.kr) 등의 웹사이트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활용하고 있다. 다음(Daum)의 경우는 자신의 Daum백과를 다른 포털(네이트, 구글)과 연결시켜서 제공하는 확장의 발전을 꾀했다. 다만, Daum백과는 동영상 및 이미지의 콘텐츠 제공이 다소 약한 편이며, 자신들의 포털에서 제공하는 다량의 동영상과 이미지를 백과사전에 활용한다면 보다 풍성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네이버나 다음과는 다르게, 구글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별도의 백과사전 또는 사전지식의 매뉴얼을 둔 것이 아니라 전체 종열식의 정보를 나열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사전지식을 제작하는 것이 아닌 해당 사전의 사이트로 바로 가는 방식을 채택[8]하고 있다.

〈표 1〉을 통해서 한국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종이사전 편찬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표 2〉의 온라인 제공여부 또한 파악함으로써 사전 디지털화의 현주소를 직시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해당 사전의 내용적인 측면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다음 장에서 논한다.

2) 한국 무형문화재 관련 사전의 해제

본 연구자는 〈표 1〉과 〈표 2〉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종이사전을 중심으로 해제 작업을 통해 내용적인 부분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 해제를 수행[9]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으로는 첫째, '사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파악한다. 둘째, 형식의 체계성, 균질성, 일관성을 살펴본다. 셋째, 내용의 적합성, 논리성 등을 따져서 사전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평가한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8) 김윤지, 「주요 검색 포털 사전으로 본 국가무형문화재 지식제공의 현황과 역할」, 『문화와 융합』, 제38권 6호, 2016b, 269면.

9) 해제 작성의 구성항목은 1. 해제분량과 형식, 2. 해제항목의 구성과 내용: 1) 정의, 2) 기본서지사항, 3) 분류, 4) 편찬자 소개, 5) 편찬경위, 6) 구성 및 내용, 7) 자료가치, 8) 참조사전, 9) 주제어, 10) 참고문헌, 11) 해제자, 12) 해제일자로 되어있다. 이 중 본 연구자는 구성항목 '2' 중에서 ① 정의, ② 편찬자 소개, ③ 편찬 경위, ④ 구성 및 내용, ⑤ 자료가치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표 3〉 한국 무형문화재 관련 백과사전 해제의 관점과 내용

관점	방법	원칙	적용
맥락적 관점	가. 역사적・시대적・환경적 이해를 파악한다. 나. 그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성을 살펴본다. 다. 선행연구 및 Review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한다.	사실성 관계성	① 정의 ② 편찬자 소개 ③ 편찬 경위 ④ 구성 및 내용 ⑤ 자료가치 ⑥ 참조사전 ⑦ 주제어 ⑧ 참고문헌
형식적 관점	라. 분량・표제어 수・참여진의 수 등의 정량적 데이터를 분석한다. 마. 사전 구성・표제어 집필 항목・편집 상태 등의 구조를 파악한다.	사실성 체계성 균질성 일관성	
내재적 관점	바. 표제어별 집필구성 항목의 타당성을 파악한다. 사. 시각이미지의 상태 및 표제어와의 적절성, 적합성을 따져 본다. 아. 항목별 표제어의 서술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서, 집필원고의 신뢰성, 적합성, 전문성 등을 파악한다.	신뢰성 논리성 적합성	

〈표 3〉의 관점과 내용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민속예술사전』・『한국민속예술사전Ⅳ』・『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해제는 다음과 같다.

(1) 『민속예술사전』의 해제(예술체육학〉예술일반〉민속예술사전)

① 정의

이 사전은 1973년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민족예술의 학문적 정립을 위해 발간된 공연예술총서 중의 일부로서, 우리나라 민속극, 민속놀이, 민속음악, 민속무용 분야를 대상으로 3,500개 표제어를 담은 1979년에 발간된 국내 최초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전문지식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편찬자 소개

이 사전은 1973년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원장 송지영)에서 기획하고, 민속예술분야 편집위원인 서영호(徐淵昊)의 자문을 받아 진행되었다. 해당 주관 기관은 한국의 철학과 주체성에 기반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예술유산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공연예술총서를 발간하였으며, 이 사전은 총서 네 번째에 해당된다. 특히, 이 사전은 공연예술로서의 한국민속예술이 지닌 개념과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그에 따른

기본적인 지식을 정립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민속극, 민속놀이, 민속음악, 민속무용 등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연구자 및 전공자 24명[10]이 해설과 집필에 참여했으며, 사진은 육명심(陸明心)이 담당했다. 이론 중심의 연구진과 실기 중심의 예술인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편찬구성은 민속공연예술이 지닌 역사성, 현장성, 예술성의 측면을 조화롭게 학문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다.

③ 편찬 경위

문화예술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 해당 사전의 주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발간사에서 공연을 통해 대중과 접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기법은 배우고 익혀 나가야 하며, 이러한 기법의 수용을 위해서는 기초 이론의 습득이 중요하고 이번 민속예술사전이 공연예술의 기본서로서의 도움이 되는 책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 1970년대 이전까지 한국민속예술 특히 전통적 공연예술에 관한 정보는 백과사전이나 민속학 또는 역사서를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972년 8월 14일 「문화예술진흥법」 이후, 국가적인 정책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발간된 민속예술사전의 시사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편찬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편찬 과정의 방법론의 관한 안내가 다소 포괄적으로 제시된 점은 아쉽지만, 사전 편찬의 진행 구성에 있어서는 분야별 개관적인 설명을 먼저 제공한 후, 표제어별 지식을 제안하고 있고, 민속공연예술이 지닌 일회성과 현장성의 한계를 최대한 시각적 자료로 반영하고자 한 편찬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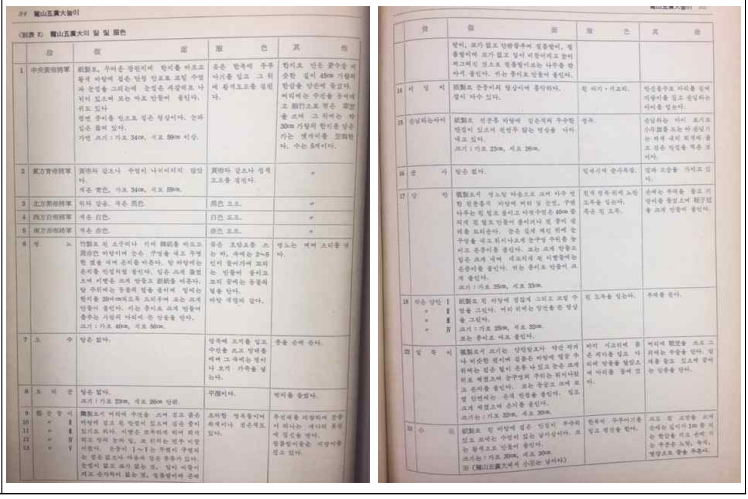
④ 구성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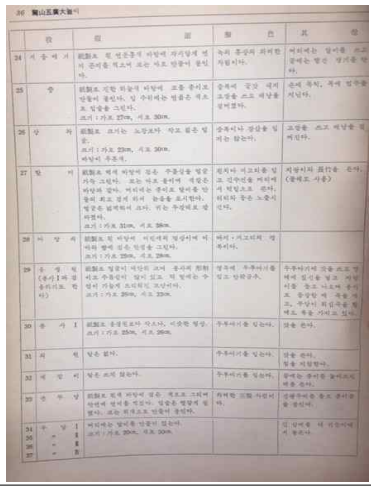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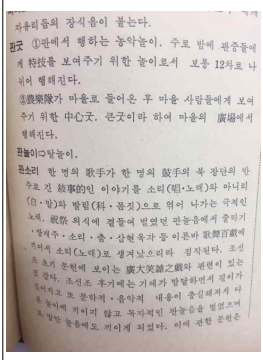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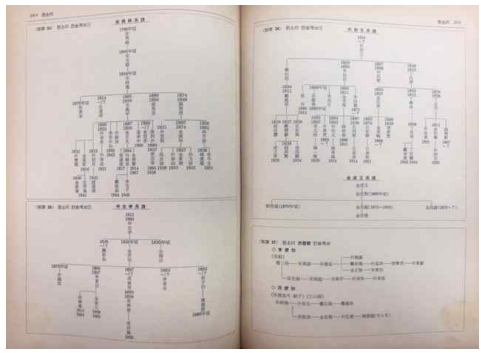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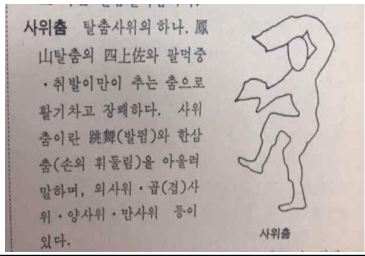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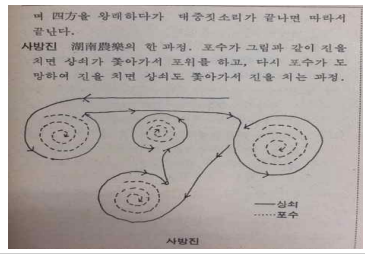
이 사전의 구성은 크게 네 부분(앞부분→'개관'→'민속예술'→'부록')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에 해당되는 앞부분의 구성은 '겉표지 / 속표지 / 발간사 / 목차 / 일러두기'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민속예술을 민속극・민속놀

10) 강용권(康龍權), 이보형(李輔亨), 한만영(韓萬營), 최길성(崔吉城), 김천흥(金千興), 성경린(成慶麟), 현용준(玄容駿), 임동권(任東權), 김태곤(金泰坤), 정병호(鄭晞浩), 권오성(權五聖), 한옥희(韓玉姬), 김흥주(金興圭), 장사훈(張師勛), 심우성(沈雨晟), 성병희(成炳禧), 최인학(崔仁鶴), 신찬균(申讚均), 김광억(金光彦), 지춘상(池春相), 진성기(秦聖麒), 김매자(金梅子), 조위민(曺緯敏).

이・민속음악・민속무용으로 세분화하여, 그에 따른 분야별 '개관'적 내용들이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세 번째 부분은 '민속예술'과 관련된 3,500개의 표제어를 자모순으로 분류하여 배열한 것이며,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부록'으로 '화보 / 기타자료 / 참고문헌'이 함께 묶여서 있다.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 먼저 민속예술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민속극・민속놀이・민속음악・민속무용을 분야별로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 집필자에 따라서 구성과 분량의 상이한 차이는 있지만, 해당 분야의 개념・유래・종류의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자모순에 따른 표제어의 내용은 표제어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가산오광대' 경우, 정의를 먼저 밝힌 후 역사적 형성 과정과 주요 특성들을 200매 원고지 기준 11-12장 정도로 할애하여 기술했고, 원고지 기준 5-6장 정도의 〈별표〉까지 두어, 해당 민속극의 배역별 가면과 복색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했다. 또한 판소리의 내용에는 유파별 전승계보에 관한 〈표〉를, 춤 또는 춤사위의 경우에는 〈삽화〉를 간명하게 첨부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표 4〉『민속예술사전』 유형별 제시 현황

유 형	『민속예술사전』
구체적인 절차내용 제시	(예시1) 민속극〈'가산오광대' 표제어 

<table>
<tr><td></td><td></td></tr>
<tr><td>전승
계보
제시</td><td>(예시2) 민속음악(‘판소리’ 표제어
</td></tr>
<tr><td>이미지
(삽화)
제시</td><td>(예시3) 민속무용(‘사위춤’ 표제어
</td><td>(예시4) 민속놀이(‘사방진’ 표제어
</td></tr>
</table>

⑤ 자료 가치

㉠ 사전사적 가치: 1970년대 국가적 방향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그에 따른 정책의 결과 일부가 『공연예술총서 Ⅳ 민속예술사전』인 것이다. 한국민속예술 특히 전통적으로 내려온 공연예술에 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체계화한 이 사전은 문화예술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최초의 민속예술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 학문적 가치: 이 사전의 구성 요소와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편찬 지침의 방법론(분야별 표제어 선정기준 및 추출, 표제어별 양식, 집필자 선정 및 제시 등)이 미약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한국민속공연예술의 무형적 가치를 유형적인 사전으로 남겼다는 점이다. 시간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연예술은 그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현장성과 일회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더군다나 근세의 전통사회로부터 내려와 근대를 지나 현대까지 전승되어 온 한국 민속공연예술을 기록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즉 이 사전은 기록 환경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민속공연예술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학술성으로 남김으로써, 그 당대 공연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의 가치를 지녔다고 본다.

㉢ 기타: 이 사전은 당대 공연현장을 이끈 예인들의 흔적과 혜안을 지닌 전문가들의 관점들이 모여, 근대와 현대를 이어온 민속공연예술의 시대상을 반영한 또 하나의 표상이다.

(2) 『한국예술사전Ⅳ』의 해제(예술체육학>예술일반>한국예술사전)

① 정의

이 사전은 대한민국예술원이 한국예술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5년에 발간한 『한국예술사전Ⅳ』이며, 우리나라 연극・무용・영화를 대상으로 작품, 용어, 서명, 명칭, 극단, 춤명, 단체, 극장, 기관에 관한 총 3300여 개의 표제어를 수록하고 있다.

② 편찬자 소개

이 사전은 대한민국예술원에서 1985년에 발간한 『한국예술사전(韓國藝術事典)』 전 4권(Ⅰ문학, Ⅱ미술, Ⅲ 음악, Ⅳ 연극・영화・무용) 중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시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인 이해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전은 한국 예술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한국 역사와 함께 해온 예술적 업적을 정확하고, 보편적인 학문적 관점으로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극・영화・무용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망라되어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 먼저 14명의 편찬위원으로는 곽종원[문학평론가], 김기수[국악가], 김백봉[무용가], 김자경[성악가], 유경채[서양화가], 박노수[동양화가], 박민종[바이올린 음악가], 배길기[서예가], 이원경[극작가], 이준[미술가], 이해랑[연출가], 정한모[시인], 조병화[시인], 차범석[극작가]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14명의 항목선정위원회[11]를 두어, 편찬위원회의에서 위임된 관련 안건들을 담당하게 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연구자 50명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③ 편찬 경위

연극 연출가인 이해랑(李海浪)이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으로 재임(1984-1987)하는 동안, 열악한 한국예술학의 정립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국예술사총서(韓國藝術史叢書) 전 4권(Ⅰ문학, Ⅱ 미술, Ⅲ 음악, Ⅳ 연극・영화・무용)을 1984년에 간행하였고, 바로 이어서 1985년, 『한국예술사전』 전 4권이 편찬되었다. 이 중 '한국 연극・영화・무용 사전' 은 고대로부터 1979년까지 우리나라 연극, 무용, 영화와 관련된 표제어 3,300여 개를 수록한 전문용어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5년여간 자료를 수집하고, 대외적인 자문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표제어의 선정 및 항목 구성, 집필자 선정, 원고 정리 등을 맡아서 수행했다. 특히 표제어 항목 구성을 극단, 극장, 기관, 단체, 명칭, 서명, 시상, 용어, 인명, 작품, 제전, 춤명 등으로 상세히 나눴으며, 인명의 경우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20

11) 연극분야: 이해랑, 차범석, 유민영 / 무용분야: 김천흥, 안제승, 육완순, 홍정희 / 영화분야: 김소동, 유현목, 정일몽 / 민속분야: 임동권, 박황, 심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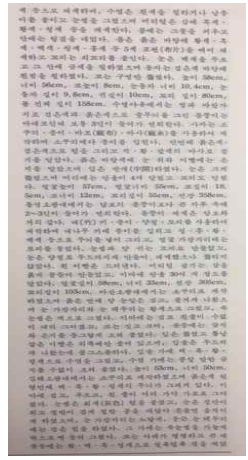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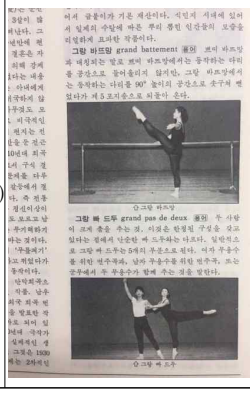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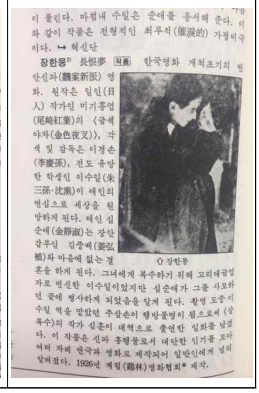
년 이상 종사한 분들로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일련의 편찬 방향과 경위는 이 사전의 전문성, 공정성, 완벽성을 기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정확하고도 보편적인 학문적 관점을 제공하고자 했던 편찬의 목적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불어 한국의 역사와 함께 해온 공연예술 및 영화의 찰나적 순간들을 학문적 기념비로 남기고자 했던 편찬기관 및 기관장의 숙원적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④ **구성 및 내용**

이 사전은 전문지식이 없는 독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성과 내용을 추구하고자 했다. 먼저, 우리나라 연극・무용・영화를 대상으로 극단, 극장, 기관, 단체, 명칭, 서명, 시상, 용어, 인명, 작품, 제전, 춤명과 관련된 3,300여 개의 표제어를 자모순으로 담고 있으며, 부록으로는 연극・무용・영화의 연표, 전국공연일람, 항목색인 등이 포함되었다. 표제어의 특성 및 집필자의 관점에 따라서 분량과 내용에서의 차이가 다소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공통된 기본 서술 항목이 유지된다. 예를 들면 극단, 극장, 단체, 기관과 관련된 표제어의 경우, 창립년도, 창립자, 위치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었고, 3,300여 개의 표제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용어' 의 표제어들은 해당 용어의 일반적인 설명과 역사적 과정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특히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현대무용과 발레의 동작 용어의 경우는 직접 동작 시범을 한 사진을 함께 제공했고, 춤의 이름 또는 영화명의 표제어들은 해당 작품의 대표적인 이미지(사진, 그림, 포스터 등)를 첨부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또한 '서명' 관련 표제어는 공통서술항목으로 발행년도, 발행인,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련 전공자 및 학문 후속 세대들에게 유용한 서지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민속극의 경우는 연대별, 지역별, 역할별로 상세하게 다뤄졌는데 한 예로 '사자'(獅子) 표제어는 각 지역별 사자탈의 특성, 크기, 이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줌으로써, '사자탈'이 지닌 지역성, 민속성, 역사성까지 가늠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표 5〉『한국예술사전Ⅳ』 유형별 제시 현황

<table>
<tr><th>유 형</th><th colspan="3">『한국예술사전Ⅳ』</th></tr>
<tr><td>구체적인 내용제시</td><td colspan="3">(예시1) 연극〈'사자' 표제어

</td></tr>
<tr><td>이미지 (포스터, 사진 등) 제시</td><td>(예시2) 무용〈동작사진
</td><td>(예시3) 연극〈극단이름〈'운명' 표제어
</td><td>(예시4)영화〈'장한몽' 표제어
</td></tr>
</table>

⑤ 자료 가치

㉠ 사전사적 가치: 이 사전은 사전 편찬의 기본적인 방향과 요소에 충실한, 한국 최초 공연 및 영화의 전문용어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표제어 분류의 명확성, 이미지 편집의 규칙성, 이미지 예시의 적합성, 원고 내용의 전문성, 교정·교열의 일관성 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예술지

식의 편집과 이미지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찬된 점은, 한국 공연 및 영화사전 중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 학문적 가치: 이 사전은 공연 및 영화사전으로서의 모범적인 사례일 뿐 아니라, 그 서술의 내용 또한 학문적으로 우수했다. 학문적이라는 의미는 지식의 정확성・객관성・논리성・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해당 사전은 공연 및 영화에 관한 지식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했다. 특히 '서명'의 표제어를 제공한 점은 오늘날 연구자들에게는 중요한 참고문헌의 정보가 될 만하다. 즉 이 사전 자체가 한국 연극, 무용, 영화의 지식을 담은 학문적 결정체인 것이다.

㉢ 기타: 종합적으로 이 사전은, 사전사적 가치와 학문적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고, 그 가치를 이번 해제를 통해서 반영하고자 했다. 더불어 숨겨져 있던 이러한 지식들을 공유하고, 확대할 수 있는 지식 보급의 현대적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해 본다. 아이작 뉴턴의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는 말처럼, 이 사전은 거인의 어깨와 같은 성과물로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술지식의 보급을 통해 우리들은 더 넓고 발전된 사전 편찬의 학문적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과거에 만들어진 예술사전의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사전이 편찬될 때, 그 사전은 해당 지식을 오롯이 잘 담아 낸, 더 나은 지식결정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이번 해제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본다.

(3)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해제(인문학〉민속학〉한국민속대백과사전)

① 정의

이 사전은 국립민속박물관이 한국 민속의 모든 지식을 압축하여 분야별로 편찬한 백과사전으로, 『한국세시풍속사전』(2004-2007), 『한국민속신앙사전』(2009-2011), 『한국민속문학사전』(2012-2013), 『한국일생의례사전』(2014), 『한국민속예술사전』(2015-2016), 『한국의식주생활사전』(2017)까지 현재 나왔으며, 향후 2024년까지 생업기술, 민속사회 분야의 사전이 나올 예정이다.

② 편찬자 소개

20여 년간 편찬되는 이 사전의 총체적인 책임자는 발간 당시의 국립민속박물관장직을 맡은 사람들이다. 『한국세시풍속사전』이 처음 발간되었던 2004년에는 김홍남 관장이, 두 번째 분야인 『한국민속신앙사전』이 발간된 2009년에는 신광섭 관장이, 그 이후부터 『한국의식주생활사전』이 나온 2017년까지는 천진기 관장이 중심이 되어 진행해 왔다. 총괄기획자 또한 분야별 사전이 편찬될 때마다 바뀌었지만, 주무부서인 사전 편찬팀이 설치되어 있어서 편찬의 방향・범위・방식에서의 일괄된 시스템 구축이 가능했다. 먼저 관외・관내 자문위원들에게 표제어 및 집필자 선정에 관한 피드백을 시작으로 하여, 원고를 수집하고, 3차시에 걸쳐서 교정과 윤문으로 원고를 다듬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수과정을 받는 것이다. 일련의 편찬과정에 참여한 집필자는 『한국세시풍속사전』에는 124명, 『한국민속신앙사전』에는 329명, 『한국민속문학사전』 263명, 『한국일생의례사전』 90명, 『한국민속예술사전』 151명 등이 동원되었다. 물론, 분야별 유사한 표제어가 많은 관계로 집필자 및 내용적인 측면에서 중복되는 사례가 더러 있다. 문학편 '판소리'와 음악편 '판소리'의 경우, 그리고 민속극편 '탈춤'과 무용편 '탈춤'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중복이 있다 보니, 간혹 음악편과 무용편의 표제어들을 인문학 전공자들이 서술함으로써 실기 중심의 핵심 부분이 빠지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문 집필진의 부족과 행정적인 절차상의 원인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③ 편찬 경위

이 사전은 2001년 2월 편찬기획을 시작으로 하여, 2024년까지 완료예정인 한국 민속의 모든 지식을 압축하여 부문별로 풀이한 백과사전이다. 2002년부터 사전 편찬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기본적인 편찬 경위는 먼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10여 차례의 자문회의와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사전의 명칭, 편찬 방향, 항목 설정, 표제어와 집필자 선정 등의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그 이후 사전 편찬팀은 선정된 표제어를 집필자들에게 발주하고, 원고를 수합한 뒤에 전문 교정자들이 그 원고를 3차에

걸쳐서 교정, 윤문, 교열한다. 그리고 감수위원들에게 마지막 검토를 받으면 최종원고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 최종원고를 토대로 출판사에서는 사전을 발간하는 것이다. 분야별 사전이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전의 내외적 디자인과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일관성과 통일성이 유지된 백과사전으로서의 형태를 갖췄다. 더 나아가 이렇게 편찬된 종이사전은 현대사회에 맞춰서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데, 이 점은 이 사전이 갖는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하다. 즉 이 사전의 주무기관은 종이사전의 제공된 모든 지식을 웹・앱 서비스로 제공하는 동시에, 음원・동영상・이미지 등의 미디어 콘텐츠까지 구축하여 보급할 수 있는 온라인 편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④ 구성 및 내용

이 사전은 크게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봄・여름・가을・겨울),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마을신앙・가정신앙), 『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민요・판소리), 『한국일생의례사전』, 『한국민속예술사전』(민속극・민속놀이・무용・민화・음악・농악), 『한국의식주생활사전』(의생활・식생활)으로 편찬되었고, 향후 〈생업기술〉과 〈민속사회〉에 관한 사전이 발간되면 백과사전 편찬의 대장정이 끝난다. 분야별로 사전의 형식, 구성, 관점, 내용 등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지만, 맥락적인 측면에서는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먼저, 분야별 대상의 범주는 전통사회로부터 오늘날까지 내려온 모든 민속 문화의 요소들을 담고 있으며, 사전 구성의 체계는 발간사-발간개요-일러두기-차례-자모순 배열-색인-편찬자 명단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제어는 분야별로 층위를 대항목-중항목-소항목으로 분류하였고, 그 분류에 따라서 원고분량이 책정되므로 표제어마다 원고분량과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공통적인 서술항목인 정의-유래-내용-(지역/국가)사례-구성-의의-참고문헌-필자 정보는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사전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표제어의 이미지 상태, 선택, 편집의 우수성이다. 공립박물관이라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소장하고 있는 그림, 사진, 자료 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며, 유사 공립기관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혹여 적합한 이미지가 없을 경우에는 전문 촬영팀이 현장으

로 가서 원하는 이미지를 촬영하기도 한다. 이렇게 확보한 이미지들은 표제어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하는데, 예를 들면 굿, 농악, 민속, 의식 등의 절차가 중요한 표제어의 경우는 식순별 또는 거리별로 모든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배열하거나, 제조의 과정이 중요한 '극락문'의 표제어는 현장에서의 제조 과정을 이미지로 보여준다. 또한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혼례'와 같은 표제어는 그 역사적 변천과정을 쉽게 알 수 있게 과거와 현재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비교하여 나열하였다. 이 같은 이미지를 활용한 시각적 효과는 민속 문화의 이해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과정의 전승과 변용의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으며, 교육용으로도 매우 적합한 구성력을 지녔다고 본다.

〈표 6〉『한국민속대백과사전』 유형별 제시 현황

<table>
<tr><th>유 형</th><th colspan="2">『한국민속대백과사전』</th></tr>
<tr><td>구체적인 절차제시</td><td>(예시1) 민속극('양주별산대놀이' 표제어
</td><td>(예시2) 민속놀이('강강수월래' 표제어
</td></tr>
<tr><td>이미지 (포스터, 사진 등) 제시</td><td>(예시3) 민속음악('관소리' 표제어
</td><td>(예시4) 민속무용('법고춤' 표제어
</td></tr>
</table>

⑤ 자료 가치

㉠ 사전사적 가치: 점점 사라져 가는 한국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새롭게 생겨나는 한국적 문화의 현대적 수용을 위해서도 한국 민속 문화에 대한 정리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전은 한국민속문화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하여 분야별로 풀이한 최초의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사전은 기록 작업에 다소 취약했던 민중, 기층, 무형의 문화 지식까지 포용함으로써 '한국민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한국 민속의 정체성까지 도출할 수 있는, 전문백과사전의 외향을 확장시킨 또 하나의 정수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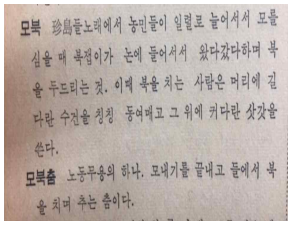
㉡ 학문적 가치: 이 사전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민속 문화의 조각들을 하나의 학문적 결정체로 집대성한 '한국 민속학'의 종합서이다. 특히 이 사전은 민속학, 인류학뿐만 아니라 예학, 역사학, 예술학, 가정학 등 인접학문의 연구자가 총 망라되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를 수 있는 관점과 내용을 이미지와 함께 제공해줌으로써 한국민족의 사상과 철학까지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법고창신의 발판은 물론, 새로운 관심과 연구의 촉매역할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 기타: 종합적으로 이 사전은 한국 민속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속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행해지는 우리 민속 문화들을 지식화하여, 그 전형(典型)을 가늠해줌으로써 한국 민속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보고(寶庫)인 것이다. 더 나아가 정보화, 세계화, 디지털화 시대에 맞춰서 이 사전의 모든 기초자료는 웹과 앱의 서비스를 통해서 보급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지식을 공유, 확산,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적 가치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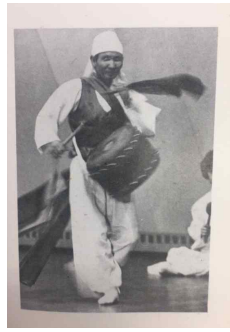
3) 한국 무형문화재 관련 백과사전 해제로 본 의미와 방향

이번 해제를 통해서, 한국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사전편찬 정보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아래 〈사진 2, 3〉와 같이 현시대에서 제공하지 못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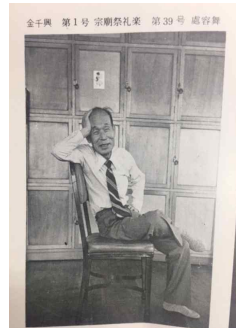
는 소중한 지식을 담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모북 珍島풀노리에서 농민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모를 심을 때 북잡이가 논에 들어서서 왔다갔다하며 북을 두드리는 것. 이때 북을 치는 사람은 머리에 길다란 수건을 칭칭 동여매고 그 위에 커다란 삿갓을 쓴다.
모북춤 노동무용의 하나. 모내기를 끝내고 들에서 북을 치며 추는 춤이다.

〈사진 1〉『민속예술사전』 '모북'과 '모북춤' 표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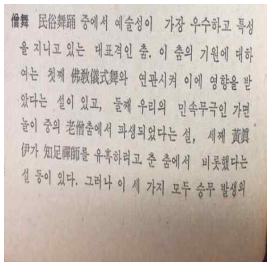


〈사진2〉『민속예술사전』 '모북춤' 표제어


金千興 第1号 宗廟祭礼楽 第39号 處容舞

〈사진 3〉 조선시대 궁중의 마지막 무동(舞童) / '김천흥' 표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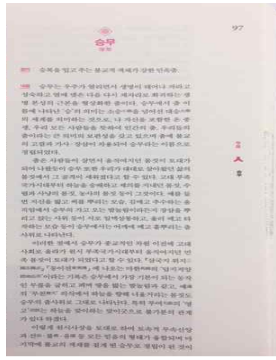
더 나아가, 이러한 백과사전의 지식정보들은 한국 무형문화재의 사적 조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당대 예술을 바라보는 그들의 자세와 사상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의 전승과정까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僧舞 民俗舞踊 중에서 예술성이 가장 우수하고 특성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춤. 이 춤의 기원에 대하여는 첫째 佛教儀式舞와 연관시켜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설이 있고, 둘째 우리의 민속무극인 가면놀이 중의 老僧춤에서 파생되었다는 설, 세째 黃鎭伊가 知足禪師를 유혹하려고 춘 춤에서 비롯했다는 설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 승무 발생의

〈사진 4〉 1970년대『민속예술사전』'승무'



〈사진 5〉 1980년대『한국예술사전 Ⅳ』'승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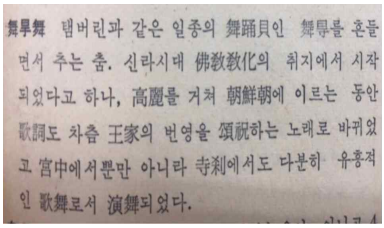

승무

〈사진 6〉 2000년대『민속대백과사전』'승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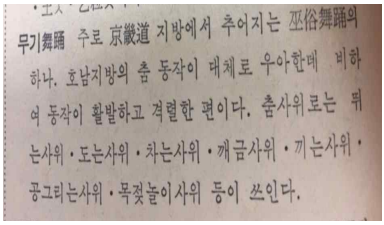
이 부분은 서두에서 언급했던 무형문화재가 지닌 근본적인 특성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유형적 예술 또는 유형 유산의 경우는 실체의 보존 상

태 또는 최종 상태에 집중한다면 무형적 예술의 경우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발전 또는 인간 표현의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대별로 편찬된 사전 속에서도 무형문화재 전승의 발전 과정을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물론 오류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무애무(舞旱舞)' 표제어와 '무기(舞踊)' 표제어의 경우, 한자의 표기가 잘못되었다.


舞旱舞 탬버린과 같은 일종의 舞踊具인 舞旱를 흔들면서 추는 춤. 신라시대 佛敎敎化의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나, 高麗를 거쳐 朝鮮朝에 이르는 동안 歌舞도 차츰 王家의 번영을 頌祝하는 노래로 바뀌었고 宮中에서뿐만 아니라 寺刹에서도 다분히 유흥적인 歌舞로서 演舞되었다.

〈사진 7〉『민속예술사전』'무애무(舞旱舞)' 표제어.


무기舞踊 주로 京畿道 지방에서 추어지는 巫俗舞踊의 하나. 호남지방의 춤 동작이 대체로 우아한데 비하여 동작이 활발하고 격렬한 편이다. 춤사위로는 뛰는사위·도는사위·차는사위·깨금사위·끼는사위·공그리는사위·목젖놀이사위 등이 쓰인다.

〈사진 8〉『민속예술사전』'무기(舞踊)' 표제어.

이외에도 표제어의 집필내용이 소략하게 제시된 사례 또한 있다. 각 분야별 유형 범주 및 표제어 선정의 기준 또한 불명확하고, 유형별 집필 항목의 편성이 일괄적이지 못하며, 편집의 완성도에서도 불안정한 상태가 보인다. 아마도 이것은 무형문화재가 지닌 복잡하고 어려운 본질 때문일 것이다. 그 본질로 인한 자료 수집의 문제, 분류 연구의 문제, 전문 집필자의 부족 등으로 무형문화재의 사전적 지식구축에는 많은 어려움을 동반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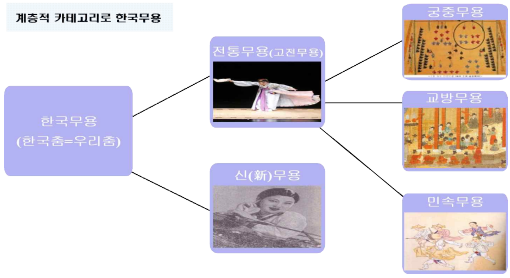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여 현재의 상황을 정비하고 미래적 사전 편찬의 프레임을 고찰해야 한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 제공이 아닌 무형적 유산의 생성, 과정, 수용, 변용, 인물, 의미까지 포함하는 사전 편찬의 관점으로 미래적 방식의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승무' 표제어의 집필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무형문화재 지식제공의 미래상을 제안해본다. 그리고 앞서, 이러한 사전 편찬의 목적을 설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무형문화재 사전은 전통성을 지닌 한국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을 지키고, 알릴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이라고 보며, 그 중심에는 지식 정립의 사전 편찬 플랫

폼을 통해서 한국 무형문화재의 지식 체계·지식 유통·지식 저변을 꾀하고자 한다. 무형유산의 국제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서 '재생산'될 수 있는 무형유산을 둘러싼 분쟁들을 사전 편찬의 플랫폼으로 검증할 때 한국 무형문화재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시도는 더욱 논리적인 명분으로 그 타당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에 해당 목적에 부합되는 쟁점[12]안을 고려한 한국 무형문화재 사전 편찬을 위한 표제어 집필의 프레임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표 7〉 한국 무형문화재 사전 제27호 '승무' 표제어 집필의 프레임 및 플렛폼(현재 기준)

□ 1. 명칭: [승무(국문명)] Seungmu(영어음역) / Dance of Buddhist monk(영어 의미역) □ 2. 정의: 장삼을 입고, 법고를 치는 독무 형식의 민속춤(무용) □ 3. 계층적 카테고리 (문화재): 문화재〉무형문화재〉전통 공연·예술〉국가무형재 제27호〉승무 (성격): 한국무용〉전통무용〉민속무용〉승무  □ 4. 이칭: 중춤 □ 5. 개관: 승무의 기원에 관한 정확한 제시는 사실 불가하지만, 18세기 말경 유득공의 「경도잡기(京都雜記)」, 1849년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 보면 걸립을 위해 북을 들고 시가로 들어오는 〈법고〉와 나례도감으로서의 탈춤 과장의 〈승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중에서 유행된 탈놀이 과장 중 극적 재미가 높고, 작품화가 가능했던 과장을 선택하여 〈승무〉라는 명칭으로 1872년(고종9) 정현석의 진주지방의 『교방가요』에서 기록되는데, 그 내용은 지조 없는 변절과 가벼운 사랑의 이동 등을 중심으로 한 대사가 없는 춤으로 모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즉 시주 및 의식을 위해서 행해졌던 승의 무, 또는 탈춤과장의 〈승무〉는 전문 예인 집단이라고

국가무형문화재
명칭: 승무
종목: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1969년 7월 4일 지정)
보유자: (故)한영숙, (故)이매방, (故)정재만, 이애주
장소: 대한민국
정보: 문화재청 문화유산 정보
경기도 무형문화재
명칭: 승무
종목: 시도무형문화재 제8호 (1991년 10월 19일 지정)
보유자: 김복련
장소: 수원시
정보: 문화재청 문화유산 정보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명칭: 승무
종목: 무형문화재 제15호 (2004년 04월30일 지정)
보유자: 송재섭
장소: 대전 동구
정보: 문화재청 문화유산 정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명칭: 승무
종목: 시도무형문화재 제27호 (2000년 01월11일 지정)

12) 그 쟁점은 역사적 근거가 확실하며, 오랜 시간 동안 시대별 특성과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지속적인 수용과 변용의 진화적 과정을 걸쳐서, 오늘날 해당 국가의 문화적·사회적·예술적 표상이 될 만한 것을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등재기준 및 무형유산 가치의 의미파악을 토대로 한국 무형문화재 사전 지식 구축 프레임의 구성안에는 전승의 지속성·발전의 과정·학술적 근거·계보의 정체(正體)·예술적 특성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지, 앞의 글, 2016a, 215면 재인용.

할 수 있는 교방의 문화로 수용되면서 근세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독립화된 춤 작품으로서의 〈승무〉로 전승되었다고 본다.

□ 6. (무형 문화재・인류무형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



□ 7. 특징(예술적/구조적 특성):
승무는 흰 장삼에 붉은 가사를 걸치고, 염불・도드리・타령・ 굿거리・자진모리 등 다양한 장단의 변화에 따라서 춤을 춘다. 반주로는 피리, 대금, 해금, 장구, 북 등이 사용되는데, 장단과 춤사위의 고저강약이 매우 분명한 춤 중에 하나이다. 특히 다양한 춤사위를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한국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다.

□ 8. 전승 계보 (계보의 정체성):
〈승무〉 종목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27호
보유자: 1대 (故)한영숙 – 2대 (故)정재만・이애주
1대 (故)이매방
전수조교: 현재 (-)명 / 이수자: 현재 (-)명

□ 9. 필자: 김윤지

□ 10. 참고문헌:

□ 11. 키워드/참조어/해시태그:

동영상	이미지	토크방	최근 변경내역	기 타

보유자: (故)심화영
장소: 서산시
정보: 문화재청 문화유산 정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명칭: 전라삼현승무
종목: 시도무형문화재 제52호 (2014년 10월25일 지정)
보유자: 문정근
장소: 전주시
정보: 문화재청 문화유산 정보

*
*
*

문화재 보호법 정보 (법적정보주소연결)

사실 사전 편찬의 플랫폼은 작동의 기반이 되는 표제어 데이터의 정제 또는 설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표제어 데이터가 설계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자동적으로 작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혜안과 판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지식 편집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진실을 제시할 수 있는 윤리성과 객관성이 필요하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할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해주고, 업로드되는 최신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데이터 타당성을 검증해줄 수 있는 도구 또는 수단의 매뉴얼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

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오류를 추후에 수정하기 쉽게 구성해둔다.

4. 나가며

본 연구는 개화기 이후부터 2010년까지 국내에 간행된 사전 속에서 무형문화재가 어떤 모습, 어떤 내용으로 제공되어 왔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것을 토대로 어떠한 미래를 그릴 수 있는지를 아래와 같이 논의했다.

첫째, 무형적 예술은 사유하는 인간의 표현에 의해서 '성숙된 보다 나은 삶'으로 진보할 수 있는 도구이자, 작업이자, 작품인 것이다. 그리고 '한국 무형문화재'는 한국이라는 지역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동일한 문화권 속에서 시간의 축적과 함께 전승된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 대표성을 지닌 공식화된 고전으로 여기며, 관련 분야로는 공연・관습・의식・놀이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한국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사전 편찬의 정보를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17권의 사전이 편찬되었고, 이 중 60%는 백과사전이었다. 그리고 11%가량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상황이다.

셋째, 해제를 통해서 사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니, 표제어의 집필내용이 소략하게 제시된 사례, 각 분야별 유형 범주 및 표제어 선정의 기준이 불명확한 사례, 유형별 집필 항목의 편성이 일괄적이지 못한 사례, 편집의 완성도가 불안정한 사례 등이 도출되었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무형문화재가 지닌 어려운 본질과 특성으로 인한 자료 수집의 한계, 분류 연구의 문제, 전문 집필자의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넷째, 무형문화재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 제공이 아닌 무형적 유산의 생성, 과정, 수용, 변용, 인물, 의미까지 포함하는 사전 편찬의 관점으로 미래적 방식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표제어의 집필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사전 편찬의 미래상을 그려 보았다.

이처럼 과거에 만들어진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사전의 역사를 토대로, 현대적 소통과 미래적 발전을 가져올 새로운 사전이 편찬될 때, 그 사전은 해당 지식을 오롯하게 잘 담고 있는, 더 나은 지식의 결정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윤지,「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가치의 재인식과 쟁점 모색」,『문화와 융합』제38권 3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a, 201-226면.

_____,「주요 검색 포털 사전으로 본 국가무형문화재 지식제공의 현황과 역할」,『문화와 융합』제38권 6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b, 249-277면.

_____,「한국민속예술사전 편찬을 위한 민속무용 표제어 추출의 설계와 적용」,『한국사전학』제27호, 한국사전학회, 2016c, 109-128면.

도원영・신상현・최경봉,「사전편찬 정보통합 DB구축 방안연구」,『민족문화연구』제75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17-37면.

박소연,「주요 포털들의 멀티미디어 검색 서비스 비교 분석」,『한국문헌정보학회지』제44권 4호, 한국문헌정보학회, 2010, 395-412면.

_____,「국내 주요 검색 포탈들의 백과사전 서비스 비교 평가」,『정보관리학회지』제31권 3호, 정보관리학회, 2014, 217-230면.

박철순・이준만・하송,「인터넷 포털산업의 재편 : 네이버의 전략적 혁신」,『경영교육연구』제10권 2호, 경영교육연구학회, 2007, 107-129면.

이용욱,「지식공간과 디지털기억의 알고리즘」,『한국언어문학』제102집, 한국언어문학회, 2017, 257-281면.

한나 아렌트 지음, 이진우・태정호 옮김,『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7.

【Abstract】

Publication Status and Direction of the Dictionary associated with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of Korea

Kim, Yun-Ji*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published dictionaries associated with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of Korea among all dictionaries that have been published from right after the opening period to year 2010 and, based on the analysis, it aimed to identify a necessity for publication of 'Dictionary on Korea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to propose a publication frame for knowledge construction in the fu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of Korea are considered as the formalized classical assets that contain the historical, academical, artistic and representative values, which all have been passed down along the accumulation of time within identical cultural boundary based on the regional basis of Korea. There are about 17 hard-copied dictionaries that have involved in the corresponding domain and the two of these are currently being provided in on-line environment via search portals.

Secondly, this study selected 3 dictionaries as representatives and took them into pieces for further analysis. The results enabled to identify the phases of the times when the knowledge of each sector was published and to perceive that those can be the fundamental data for research on the history of related dictionary. However, there were several limitations in relevant dictionary publication and also tasks to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for instance, the headwords were roughly written, the content descriptions were too fragmentary, or the degree of completion in editing was relatively lower.

Thirdly, it is required to design a dictionary that reflects futuristic senses based on the knowledge platform that is constructed through an approach with fundamental understanding on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of Korea. This study proposed a fu-

* Adjunct Professor, Institute for Future Talents, Hanyang Univ. / Expert Committee f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t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uristic frame of 'Dictionary on Korea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publication through 'Seungmu (Dance of Buddhist monk)', which is one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of Korea.

As mentioned above, the core values of the integrated information DB construction project for dictionary publication include to investigate the past dictionaries, to compare them with those currently available and to provide a ground for seeing through the future dictionaries.

Keywords: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of Korea, Dictionary, Art, Dance, Dance of Buddhist monk.

접수일: 2019.09.30. ‖ 심사일: 2019.10.08. ‖ 게재확정일: 2019.11.15.